

# 原油의 판매형태와 油價체계

현 재의 石油市場에서 原油는 상당히 안정적 인 공급상태(또는 공급과잉상태)에 있다. 이와 더불어 現物市場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公式 또는 장기계약가격이 그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그리하여 產油國들은 시장여건에 부합될 수 있는 새로운 價格體系를 모색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PIW誌는 公式價格의 성격을 재조명 하면서 石油市場에서 발생하는 諸般 판매형태를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는 PIW를 中心으로 중요한 요점을 정리하여 본다. <편집자 주>

## 1. 머리말

公式價格이란 일반적으로 公示 및 장기계약가격 을 말하며, 이에 OPEC와 같이 정부 또는 國營 石油會社가 정하는 公式(Official) 價格과 美國 및 캐나다와 같이, 原油 購入會社(精油회사)가 정하는 (Posted) 價格이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全的 으로 每日의 시장에서 결정되는 現物價格의 불안 정성을 보완한다는 點에 있어서 그 유용성이 인정 되고 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公式價格은 石油市 況에 따라 適期에 조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집트, 소련, 미국, 캐나다 및 에콰도르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每月 公式價格이 조정되고 있다. 中共 의 경우는 對日本輸出時 公式價格을 적용하고 있 으며, 이때의 가격은 분기별로 협의 결정된다. 그 리고 알제리는 OPEC의 가격 및 쿼터準則의 범위에 들지 않는 Condensate의 가격을 月別로 조정하 고 있다. 主要國別 公式價格의 성격과 판매제도

는 다음 表에서 요약된 바와 같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더욱 관련된 中東 및 아시아지역의 國別 특성을 살펴보자.

## 2. 사우디 아라비아

OPEC의 Swing producer로서 사우디는 公式價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속에서 도 사우디는 石油市場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融通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몇가지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石油流通協力者로서 NORBEC을 설립하였다. NORBEC은 현재 海上 및 陸上에 約 50百萬배럴의 石油를 비축하고 있으며, 주로 現物價格이 公式價보다 높을 때 現物市場 출하를 도모 하고 있다. 둘째, 輕·重質油間의 수요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패키지판매를 채택하고 있다. 現行 기본적인 공급비율은 輕質油 40%, 中質油 25%, 重質油 35%이다. 그리고 사우디는 84년에 제트기와의 바터거래를 실시한 바 있으며 石油製品 수출은 0.4백만b/d에 達하고 있다.

## 3. 이 란

이란·이라크戰爭의 영향으로 인하여 이란 石油의 公式價格은 단지 價格協商의 이론적 기초가 될 뿐이다. 이리하여 이란은 石油의 판매를 現物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하르그島에서 船積되는 원유의 가격은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運送費 및 保險料程度가 할인되고 있다. 그리고 戰爭地域外에 있는 시리島에서 선적되는 原油가격도

主要國別 公式價格의 성격과 판매제도

國 別 區 分			中 東					아 프 리 카			유 럽		아 시 아		北 美		南 美				
			사 우 디	이 란	쿠 웨 이 트	아 부 다	카 타 르	오 만	두 바이	이 라크	알 제 리	이 집 트	나 이지 리아	英 국	노 르 웨 이	소 련	인 도 네 시 아	中 공 화 국	말 레이 지 아	美 국	캐 나다
公式價格의 性格	原油販賣時公式價格의 적용여부	大部分	○	○	○						○			○	②	○	○	○	○	○	○
		部分的		○		○	○	○	○	○				○		○					○
	公式價格의 조정빈도	少	○	○	○	○	○	○	○	○				○	○	○		○			
		多						①	○				○				○		○	○	
	租稅算定의 기초				○		○	○		○	○	○	○	○			○		○	○	
販賣制度	現物價格 연계계약		○		○	○	○	○		○	○	○	○	○	○		○		○	○	
	現物市場出荷 또는 할인		○		○	?	?	○	○	?			○	○			○	○		○	
	패키지 판매		○											○					○		
	製品 판매		○	○	○	○				○	○			○	○	○					
	精製價値 연계판매			○		○			○							○					
	到着地 指定판매			○		○					○	○				○	○				
	바터 거래		○	○		○			○	○	○				○		○				

註：① Condensate, ② 日本에 대한 판매  
 〈資料〉 PIW, 85. 6. 24

일부 할인되고 있는 바, 이는 페르시아灣 지역의 原油에 대한 이란 石油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란의 바터거래는 그 物量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은 原油수출의 주요한 수단이 되어 왔다. 또한 바터거래는 相互交易(Cress-trade 또는 cross-purchase) 형태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되고 있다. 예를 들면, 최근 이란은 日本의 顧客에 대하여 相互交易去來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EES, 85/6/24) 이에 따르면 이란은 日本에 原油를 판매하고 그 販賣代金の 50%에 상당하는 日本産 商品 또는 용역을 수입하게 된다.

또한 이란은 精製價値와 연계된 石油판매를 도모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란産 原油의 가격급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原油販賣時 도착지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예로 유럽行 바터去來 原油는 주로 하르그에서 선적되고 日本行 原油는 거의 모두가 시리에서 선적된다.

4. 쿠웨이트

쿠웨이트는 公式價格을 기준으로 原油수출을 하고 있으나, 公式價格의 중요성은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 왜냐하면 現物市場 및 계약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製品판매량이 石油수출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製品수출지역은 주로 유럽, 파키스탄, 이집트 및 東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5. 아랍에미레이트 및 카타르

두바이는 生産會社가 판매하는 持分原油 공급 이외에 月別 시장가격에 기준한 D-D(Direct deal)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이리하여 두바이原油는 東方의 브렌트로 불리고 있다.

아부다비는 生産原油의 1/3(약 0.25백만b/d)을

持分 생산자를 통하여 처리한다. 그리고 Upper Zakum 原油의 0.1백만b/d를 現物市場가격으로 판매하며 프랑스의 제트기와 바터거래하는 물량은 40千b/d에 이른다. 石油製品판매는 약 80千b/d이다. 나머지 약 0.3백만b/d가 公式價格으로 거래되며, 이의 대부분이 日本으로 수출된다. 이때 日本은 의 상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할인을 받고 있다.

카타르의 경우도 現物市場판매와 精製價値를 기준한 原油판매를 하고 있다. 카타르製品 수출은 약 40千b/d이며, 이것은 原油생산의 약 15%에 해당된다.

### 6. 이라크

이라크의 바터去來量은 약 0.4百萬b/d이며 바터 대상은 武器, 産業製品 및 개발사업 등으로 다양화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이라크는 借款이자를 原油로도 지급한다. 또한 바터去來時의 原油가격으로 現物價格이 적용되기도 한다.

### 7. 인도네시아

公式價格은 國營石油會社인 PERTAMINA의 판매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요체가 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産 原油구입자에게는 공식가격이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그의 原油를 산하 貿易會社(Satellite trading companies)들을 통하여 판매하는 독특한 방법을 취하고 있다. 즉, PERTAMINA는 그의 原油를 산하貿易會社들에게 공식가격으로 판매하고 그 회사들은 구입原油를 주로 現物價格과 연계된 가격으로 第3國에 수출하고, 여기서 발생되는 赤字는 이들이 Arab Light를 높은 가격으로 PERTAMINA에게 販賣함으로써 補填한다. 이때

Arab Light의 판매가격은 貿易會社들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수준이 된다. PERTAMINA의 이러한 판매정책에는 두가지 큰 배경이 있다. 첫째, 외형적으로 인도네시아가 OPEC의 價格 準則을 준수하는 것이 된다. 둘째, 인도네시아는 알제리아와 같이 原油가격을 공식가격으로 유지하는 것이 가스輸出價格決定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 8. 中共

中共産輸出原油의 대부분(약 0.25백만b/d)이 日本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契約價格은 분기별로 조정된다.

그리고 他國家에 대한 수출시에는 日本에 대한 수출가격의 하락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착지를 지정하고 있다. 약 0.1백만b/d가 싱가포르에서 정제되며, 이들 대부분이 싱가포르의 精製業者에게 판매된다. 현재 中共産 原油는 U. S. Gulf 및 카리브海 시장에서 장기계약 또는 精製價値 기준으로 판매되고 있다.

### 9. 말레이시아

公式價格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계약에 의한 原油판매가 主宗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現物價格에 근접한 판매방법으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 싱가포르의 精製業者를 통한 賃加工去來 물량이 70千b/d에 이르고 있으며, 장기계약 판매자가 선적하지 않은 原油를 現物市場에 출하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계약 구매자의 확보를 위하여 외상기간의 연장등 기타의 할인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의 바터거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동향〉

낭비없는 알뜰피서

약속되는 밝은내일